

	인도 ( 뉴 델 리 ) 사 무 소	작성팀	마케팅지원팀
	해외동향보고서	담당자	하 승 창 소 장
		일 시	2025. 4.

## CEPA Insight

- 한화 에어로, 인도에 K9 자주포 3,715억원 수출
- 중기부, 인도 찾아 양국 스타트업 협력 모색
- 타밀나두 산업지대, 노조 확산으로 기업들 우려 증폭

### ■ 한화에어로, 인도에 K9 자주포 3715억원 수출

#### ● 8년 만에 추가 수주 계약, 동유럽 이어 또 공략 강화

-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인도에 계약 규모 약 3,700억원의 K-9 자주포(사진) 수주 계약을 맺었다고 3일 발표. 인도 중공업 기업 라센앤드토브로(L&T)와 함께 인도 육군에 자주포를 공급할 예정.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17년 인도와 1차 계약을 맺은 바 있음. 당시 K-9 자주포 공급계약을 체결해 2020년까지 납품을 완료했고 약 7,700억원의 수주 실적을 올림.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품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추가 계약에 성공했다는 설명. 관계자는 "동유럽 등 유럽 시장에서 실적을 쌓아온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가 아시아 시장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말함. 인도와의 또 다른 계약을 기대하고 있으며 대공 체계 사업 등이 거론되고 있음.
- 인도 방위산업 시장은 빠르게 커지는 추세. 인도는 육해공 인프라 현대화 등 군 개혁정책을 추진중. 인도 방산 시장 규모는 현재 170억달러(약 24조 8,693억원)에서 5년 안에 250억달러(약 36조 5,725억원)로 커질 전망. 인도가 아시아 방산 시장의 핵심 국가인 만큼 인도에서 수주 기록을 쌓으면 주변 국가와의 추가 계약도 가능성이 높아 질 것이란 관측.

(출처: 한국경제 / 2025. 4. 3.)

### ■ 중기부, 인도 찾아 양국 스타트업 협력 모색

-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창업정책관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인도 뉴델리에 파견해 인도 상공부 산업무역진흥청(DPIIT)과 인도 중소기업공사를 만나 양국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힘.
- 대표단은 인도의 스타트업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기관인 DPIIT와 면담을 갖고, 매년 서울에서 여는 스타트업 축제 '컴업(COMEUP) 2025'에 인도 국가관 설치, 한-인도 스타트업 교

류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 이어 인도 중소기업공사와의 면담에서는 중소기업 대상 정책 지원, 자금조달 및 기술 혁신 등 제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한국 기업이 인도시장에 진출해 인도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협업 가능성을 모색.

- 대표단은 또한 인도 최고 공학 명문인 인도공과대학(IIT Delhi)을 방문해, 소프트웨어(SW) 우수 인재 채용 연계 사업의 운영 현황을 점검.
- 중기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이번 인도 방문은 정부 차원의 중소·벤처·스타트업 외교를 넘어, 한-인도 창업 생태계의 실질적 연결과 협력을 이루는 계기였다"며 "양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동반 성장을 위해 정책·인프라·인재 측면에서 전방위 협력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힘. (출처: 조선비즈 / 2025. 4.)



K-9 자주포 사진



4월 2일 중기부 대표와 인도 현지 액셀러레이터 더 서클의 부대표와의 인사 모습

## ■ 타밀나두 산업지대, 노조 확산으로 기업들 우려 증폭

- 삼성 첸나이 공장에서 37일간의 파업이 발생한 이후, 최근 타밀나두 지역에서의 노조 활동 확산으로 인한 산업지대의 운영 차질 등 산업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삼성을 비롯해 폭스콘, Dell 등 글로벌 기업이 위치한 Sriperumbudur-Oragadam 산업 지대에서 노조 활동이 확산 되면서, 업계에서는 "타밀나두의 산업 안정성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 산업법 전문 변호사는 타밀나두 산업 지역에서의 노동 불안은 일부 노조의 '비현실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요구로 인해 악화 되고 있으며, 마하라슈트라, 구자라트, 카르나타카 등과 달리, 타밀나두에는 기업이 노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협상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적 조항이 없어 정부가 법적 조치를 취해 산업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함.

(출처: 주인도대한민국대사관 / 2025. 2. 28.)

- 인도 현지의 기업운영 환경과 노동자들의 사고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음. 끝.